

벽안의 리빅키 스님, 클리블랜드 선근 심는다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한 벽안의 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선근(善根)을 키우고 있어 화제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지는 2월 13일 “이곳에서 나고 자란 리빅키(Rybicki) 스님이 티베트 불교계 불교 센터를 개원, 지역 주민들과 법회를 병행하며 그들의 심신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화제의 스님은 애니 팔모 리빅키(Ani Palmo Rybicki · 52) 스님으로 1984년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 네팔 등지에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한 후 1994년 비구니계를 받았다. 리빅키 스님이 고향을 찾은 것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지역 불심 다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한때 이웃이었던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즐겁다”는 리빅키 스님은 “스승이신 툴쿠 페마 완갈(Tulku Pema Wangyal) 스님이 비구니계를 수지한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 포교하라’고 했을 때 무척 망설였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칠만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지에 따르면, 스님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2006년 클리블랜드 웨스트 98번가에 ‘송첸 감포 불교 센터(Songtsen Gampo Buddhist Center)’를 개원한 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클리블랜드의 가톨릭계 명문인 트리니티(Trinity) 고등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란 리빅키 스



애니 팔모 리빅키(Ani Palmo Rybicki) 스님이 송첸 감포 불교 센터 저녁 명상 클래스를 지도하고 있다. ‘혼돈에서 안정으로(Turning Confusion into Clarity)’라는 부제가 붙은 이 명상 클래스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30분 진행된다.

대학 졸업 후 아시아국가 여행

일본·네팔방문 계기로 불교에 귀의

티베트 불교 수행, 비구니계 수지

고향 오하이오서 불교센터 운영

남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는 1984년 일본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제가 학위를 받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아시아 여행”이라고 말한 리빅키 스님은 “일본에서는 영어 강사로 쉽게 취업해 머물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다”며 “일본을 거점으로 태국 네팔 등을 오가며 불교를 접하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빅키 스님은 1994년 네팔에서 툴쿠

페마 완갈 스님을 스승으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대학 졸업 직후 아시아로 발길을 돌린 지 25년 만에 비구니 스님이 된 것이다. 이후 히말라야 일대에서 수행에 매진한 리빅키 스님은 2006년 고향인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로 돌아왔다. 스승의 뜻을 받들어 포교를 위해서다.

“불교 센터에서는 아침·저녁 두 차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청소년, 어린이 클래스를 각각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리빅키 스님은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며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명상 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모임의 지도봉사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빅키 스님의 포교거점인 ‘클리블랜드 송첸 감포 불교 센터’는 지난 2008년 스승

툴쿠 페마 완갈 스님의 후원으로 개원할 수 있었다. 리빅키 스님이 귀국한 지 2년만이다. 가정집을 매입해 개원한 불교 센터는 아직 개축하지 못했지만, 불자들의 도움으로 1층 거실 공간에 티베트 전통 문양이 인쇄된 벽지를 바르고, 불단을 만들어 부처님을 봉안했다. 불단에는 꽃과 향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곳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즐겁다”는 마크 세틀라(Mark Satola · 33) 씨는 “리빅키 스님을 비롯해 다른 린포체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며, 인내와 연민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기쁨”이라며 “리빅키 스님처럼 배움을 사회에 회향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가르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마르크 보나(Marc Bona · 45) 씨는 “이곳에서는 나처럼 불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리빅키 스님처럼 수행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리빅키 스님은 우리에게 그에 필요한 지혜와 자비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지는 리빅키 스님의 말을 인용 “지난해부터 송첸 감포 불교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클리블랜드에서도 뒤늦게나마 불교와 명상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는 리빅키 스님을 정점으로 한 송첸 감포 불교 센터의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몽골서 발견된 ‘미라’ 승려 아직 수행중?

전문가 “완전한 해탈까지 한 단계 남겨둔 상태”

지난 1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 송기노하이르한 구에서 발견된 200년 된 미라 승려가 명상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네이처월드뉴스 등 해외언론은 “승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미라에 대한 법의학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발견될 당시 미라는 소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45세 도골꾼이 인근 동굴에서 훔친 것으로, 미라 주인공은 19세기 라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라는 정밀검사를 위해 몽골 국립부검센터로 옮겨졌다.

울란바토르 불교 대학의 간지후엔 푸렘 바타(Ganhugiyn Purevbata) 교수는 “스님은 아직 생존해 있으며 완전한 해탈까지는 오지 한 단계만 남겨둔 상태”라며 “스님은 연꽃 자세인 금강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라마 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아주 깊은 명상 상태인 ‘특담(Tukdam)’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승려이자 의사인 배리 크레진(Barry Krezin)박사도 시베리안타임즈(Siberian Times)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라는 죽지 않았다. 나는 명상의 가장 높은 단계인 특담 상태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몇몇 승려들을 보았고, 이 승려도 역시 특담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라며 “만약 수도승이 3주 이상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의 몸은 점점 줄어들어

이어나 기자



지난 1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 송기노하이르한 구에서 발견된 200년 된 미라 승려가 명상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는 머리와 손톱, 옷만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처월드뉴스에 따르면 특담에 빠진 수행자의 심박수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느리고 육안으로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마치 동면처럼 모든 물질대사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태우게 된다.

한편 명상에 빠진 티베트 승려 중 ‘특담’을 경험한 사례는 지난 50년간 40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러시아 동남부 브라티야차치공화국에서는 러시아 유명 고승인 함보 라마(Lama Dashi-Dorzho Itigilov)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될 당시 함보라마의 시신은 관 속에서 전혀 부패하지 않은 채 가부좌 자세로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이어나 기자

코트니 러브, “염불할 때 가장 행복”

남편 코트케빈인 자살·불심으로 이겨내

“나는 불자다. 아침마다 염불하는 것은 내게 매우 진지하고 행복한 일이다. 불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할리우드 배우이자 얼터너티브 록그룹 홀(Hole)의 멤버였던 코트니 러브(사진)가 데이비드 레터맨 토크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인터넷언론 IBN Live의 보도에 따르면 코트니 러브는 데이비드 레터맨 토크쇼에서 “아침마다 한 시간 이상 염불을 한다. 사실 잊을 일 없기 위해 하는 것처럼 지루할 때도 있지만 나는 매우 행복하다”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불심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코트니 러브는 1994년 미국 얼터너티브 록그룹 너바나(Nirvana)의 리더였던 남편 커트 코베인의 자살 후, 청부업자를 고용해 타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마약과 각종 사고를 일삼는 등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코트니 러브는 “남편으로 인해 힘든 시



기가 있었지만 불심으로 이겨냈고, 나는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코트니 러브는 1992년 커트 코베인과 결혼했지만 남편 커트 코베인은 결혼 2년 만인 1994년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팬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때문에 코트니 러브는 남편을 타살했다는 루머에 시달리는가 하면 ‘악녀’로 불리기도 했다.

이어나 기자

티베트 설 앞두고 中-티베트 긴장고조

RFA, “중국 아바현등 무장 병력 증파…사실상 계엄조치”

티베트의 설인 ‘로스르’를 앞두고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 1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티베트 설 로스르를 앞두고 티베트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분리·독립 시위나 분신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장 병력을 증파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외에 망명한 티베트인 소식통들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당수 무장경찰 병력이 아바현에 배치돼 티베트인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무장경찰이 현 중심지 곳곳에 파출소와 검문소를 신설하고 준계엄상태에서 주민과 차량들을 검문 검색하면서 위협적이고 적개적인 태도를 드러내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바현에는 2주간 이어지는 로스르 준비와 축제를 위해 티베트인 유목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양측 간 긴장이 자칫 대형 유혈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반(反)중국 활동의 중심지인 거얼링(格爾登) 사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현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발생한 이후 꾸준한 분리·독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티베트인 집단거주지역에서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분신한 티베트인이 모두 135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아바 출신이 37명이나 됐다.

작년 12월 22일 아바현 마이니마(麥爾瑪)향 거리에서 마을 주민 쩌페(19·여)가



티베트의 설인 ‘로스르’를 앞두고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특히 반(反)중국 활동의 중심지인 거얼링(格爾登) 사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항의를 표시한 데 일만인 26일 거얼링 사원 승려 뤼상즈리(洛桑赤列)가 달라이라마의 초상을 들고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바현 이외에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인 간쑤(甘肅)성 사허(夏河)현, 칭하이성 황난(黃南)티베트 자치지구 쩌꾸(譯庫)현 등

에서도 사실상 계엄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한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분신자들의 요구와 항의를 묵살함에 따라 분신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